
제약·의료기기 등 K-Medi 글로벌 진출 확대

- "2015 계약 체결식(Signing Ceremony)" 개최를 통해 총 6,600억원 규모 성과 구체화-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는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2015 BIO & MEDICAL KOREA' 특별 세션을 통해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총 6,6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진출에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12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금년에 최대 규모의 수출 사례가 마련되었으며, 수출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총 14개 국내기관(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과 11개 해외기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주한 벨라루스 대사가 참석하여 가즈프롬(Gazprom)社사와 대전 선병원간에 최근에 체결('15.3.23)한 '가즈프롬 메디컬센터' 설립·운영 컨설팅 계약 등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제품·서비스가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8,000조 규모의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보건의료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산업 분야 성과가 한층 더 확대되고 있어 오늘과 같은 사례들이 확산되어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내수에서 글로벌로 체질을 개선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이날 체결한 계약과 양해각서는 출발점으로, 향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관련 기업·의료기관이 창의력과 도전력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